

창세기(13)

2 장 15 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 것은 먹지 말므로 우리 앞에 놓인 생명과 축복을 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과 저주를 멀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 죄의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묻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자녀들까지도 말은 안 하지만 마음 속에 그런 의문을 가진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만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물도 끓여야 하고 때로는 불도 지펴야 하고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게 ‘너 불에 들어가지 마라.’ 하는 것이 절대로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아담과 이브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필요가 있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같지 않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또 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악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그 이유를 우리 이 죄가 있는 이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짐승보다도 더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 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때에 찬 경륜인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죄가 아직까지 사탄이 있고 죄가 있는 저주가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저주와 사망은 주시지 말 것이지 왜 주시고 그러셨을까?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종교행위입니다. 결국 제사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짐승을 갖다 바치는 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지 죄를 자꾸 짓고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므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건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지 병이 자꾸 들어 안수 받아서 병 치료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다 보면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조차도 순종을 안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렇다고 다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모든 병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아팠고 디모데도 아팠고 드로비모도 아팠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세 절밖에 안 되는 말씀 중에서 16 절, 17 절 두 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동산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 말씀하고, 둘째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두 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행하면 될 것이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 거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10 년이 지나도 안 죽고 20 년이 지나도 안 죽었잖아.’라고 말이지요. 아담은 950 년까지 살았으니까. 요즘 사람들의 마음하고 비슷합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사망이 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움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육신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시다가 이제 가실 때가 다 되니까 어느 날 무화가 나무를 지나가시다 무화과가 있나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니까 물론 아무 것도 없었지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러시는 걸까 하며 지나갔습니다. 그 이튿날 주께서 다시 의도적으로 어제 저주했던 그 나무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거든요. 아,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믿으면 이보다 더 큰 것도 보리로다.’ 그게 뭐니까? 저주할 당시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푸른 무화과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앞을 지나다가 보니까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그게 뭐니까?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이미 뿌리부터 썩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속에 있는 그 영이 썩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일어날 때 ‘아이고, 그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일이 터져도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3 장 2 절에 보면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라 했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할 때는 다른 것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압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몰라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른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아담도 그러한 시험을 받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차를 너무 빨리 몰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을 때 ‘어휴! 나는 몰랐어요.’ 그러면 통합니까? 어렵도 없습니다. 이미 법은 선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이브가 뱀에게 대답한 말 중에 크게 3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시작이고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덧붙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 만지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브는 만지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즈음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 외에 몰몬경을 보는데 그 사람들도 킹제임스성경을 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얼마 전까지는 킹제임스성경이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이 new world version 신세계역을 사용하면서부터 쪽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호메트는 코란을 갖다 붙였고 카톨릭은 외경을 갖다 붙였고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갖다 붙였고 교황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추가되고 성경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브의 자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뺍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를 뺍니다. '혹 죽을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으로 알지 못하고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역시 이브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메리카스텐다드 버전이나 리바이스스텐다드 버전과 같은 새 번역에 보면 13 군대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왜 삭제를 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어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고상해야지. 지옥 같은 것이 있으면 되겠느냐? 금식 같은 것이 있으면 되겠느냐? 적당히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전심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겠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주님을 믿을 때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한다 했는데, 이 절을 완전히 뺐습니다. 또 앰플파이성경도 주님께서 '지금은 이 나라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에서 '지금은'을 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가 내게 속하지 않았다.' '이 땅이 내게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걸로 되는 것이죠. now 라는 단어 한 개를 빼버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산상수훈과 시편 23 편 외에 성경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사도행전 2 장 44 절에 그저 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공유해서 같이 쓰더라. 십자가 외엔 없더라. 이 말씀 하나 외에는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 칼 막스도 신학교 출신입니다. 스탈린도 신학생이었는데 다 성경 가지고 주의를 만들었지요. 성경을 빼고 자기 것을 만든 겁니다. 공산주의는 사도행전 2 장 44 절 하나 가지고 다른 것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나? 그래서 요한일서 5 장 7 절을 뺐습니다. 성경을 빼도 더해도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주장이 제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런 뜻은 아니지 어떻게 정녕 죽어? 혹 죽을까 함이지,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먹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브가 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겠어? 그것은 무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지옥이란 말이 어디 있어? 그건 불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거야.’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카톨릭은 지옥을 연옥으로 표시합니다. 또 로마 교황들은 바벨론의 신비 요한계시록의 큰 바벨론을, ‘아, 이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과 지옥을 ‘그저 마음 속에서 하늘과 같은 때가 있고 지옥과 같은 때가 있는 것이지 심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전부 교회로 돌려버리고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구약을 전부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주님 오시는 것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브가 바로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 하셨는데 창세기 3 장 3 절을 보니까 ‘혹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냥 직선적인 것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무식한 사람들도 다 알아듣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들어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유식해야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식해서 모르겠다.’ 이사야가 그랬지요.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 보면 중간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렇습니다. 요즘 신학교들이 전부 그렇게 되어가지고 신학교만 갔다 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하면 됩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 다닐 때 보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한 200 명씩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200 개씩 서고. 이게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신학이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영적으로 해석한 신학을 만들어 놓아서 그곳만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들이 약간 이상해져서 나옵니다. 안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축복을 놓치는 경우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나 같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셨다면 염려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이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염려해야지. 어떻게 내일을 염려 안 해.’ 이게 뭐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예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혹 감사할 수도 있단 얘기겠지 어떻게 이걸 감사합니까?’ 어떻게? how 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how 하지 말고, why 하나님이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뜻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빛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안이 환하게 되어 걱정 근심이 떠날 텐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지저귀는 찬새들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저들은 항상 찬양합니다. 제가 아침에 앉아 새 소리를 들을 때 전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먹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 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 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그 말을 내가 먹고 받아들일 때 생명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과를 먹는 비결입니다. 이 최악 세상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다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 먹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서 5 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 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입니다. 생명과를 먹으란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먹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먹으라는 겁니다. 생명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생명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 좀 해 봐야겠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을 또 찾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못해서 다들 쓰러져요. 물론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을 받지요. 물론 아~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 감사하면 감사가 생기고 기뻐하면 기쁨이 생기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어두움은 다 물러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기뻐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 땅은 감사할 수 없는 일만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라 이거예요. 그 감사를 먹으라, 기쁨을 먹으라, 기도를 먹으라. 기도는 뭐예요? 구하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훤히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이에요. 이걸 못해서 성도들이 어린애마냥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베이비씨터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해요. 베이비씨터 하느라고 자기들의 영적 싸움도 못하고 달래느라고. 그것이 달래서 됩니까? 말씀을 꽂아주어야죠. 책망을 해야지요. 감사하지 못할 때는 감사하라고 명령을 해야지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빛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지금 이브와 아담이 이렇게 세 가지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러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죄가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데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먹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억울한 것이 성도들이 이것을 못 깨달아서 자기도 어두움 가운데 있고 남도 못 살리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자주 얘기하지만 그 여인은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른 것을 구했을 때 그냥 뛰어나가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 왔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면 다 데려왔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매 주 혼자 올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주일 내내 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끌려오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다면 끌려옵니다. 어둠은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끌여오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여집사님이 주일마다 사람을 데려 와요. 한번은 물었어요.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요즈음 경기가 나빠서 장사도 안 되는데 항상 방실방실 웃고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웃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이니까 경기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보여서 거기 끌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불신자들은 우리 얼굴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정말 생명이 있는가를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한 실수를 하지 않고 이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기고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므로 생명과를 먹으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내 나름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 하였느니라 말씀하셨나이다. 바로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불신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보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모르면 순종할 수도 없고, 말씀을 모르다보면 사망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음에 집어넣고 묵상하며 평생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까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오늘부터라도 작정하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